

순조~철종대 科舉 四書疑 시제 출제경향 연구

윤 선 영 *

-
- | | |
|----------------------|-------------------------|
| 1. 머리말 | 3. 순조~철종대의 사서의 시제 출제 경향 |
| 2. 순조~철종대의 시제집 및 과문집 | 4. 맷음말 |
-

초록: 순조~철종 시기에는 사서의(四書疑) 시제와 제문을 담은 시제집과 과문집이 활발하게 편찬되었다. 대표 전적으로는 『과제각체(科題各體)』와 『임현공령(臨軒功令)』을 들 수 있으며, 이 외에 개인 문집 및 『사마방목』을 통해서도 사서의 시제의 일면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여러 자료들을 통해 수집한 이 시기의 사서의 시제 382문(問)을 분석하여 각 책별로 드러나는 출제 경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논어』의 경우 개념어의 정의와 선후고하(先后高下)와 관련한 문제들이 대거 출제되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 탐구와 관련한 문제 및 왕정(王政)과 사회제도에 관한 문제 등이 주로 출제되었다. 『대학』과 『중용』은 중복 출제된 문제가 많았으며 팔조목(八條目)의 문장 구조 및 체용(體用)의 분속에 관한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다. 그 밖에 여러 주석가들의 설을 인용한 문제와 4개의 책을 통틀어 낸 문제 등도 있었다. 중복 출제 문제는 한성시(漢城試)보다 향시(鄉試)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정조대와 인접한 순조대에는 잠시 보이지 않다가 현종~철종대에 이르러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 이는 곧 사서의 시제가 가지는 어쩔 수 없는 한계점으로, 시관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문(經文)을 벗어나 서문(序文) 및 주석가들의 설을 문제로 내는 등 출제의 외연(外緣)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핵심어 : 순조(純祖), 현종(憲宗), 철종(哲宗), 과거(科舉), 사서의(四書疑), 시제(試題), 『과제 각체(科題各體)』, 『임현공령(臨軒功令)』

* 국립고궁박물관 연구원.

1. 머리말

과문육체(科文六體) 가운데 하나인 사서의(四書疑)는 그동안 학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과거 시험 과목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전시(殿試)에서 출제된 대책문(對策文)에 집중¹⁾되어 왔다. 사서의는 소과(小科) 생원시의 초시(初試) 및 복시(覆試), 대과 초시의 초장(初場)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위상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대책문과 형식 및 내용적인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²⁾ 또한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사서의는 당락을 결정하는 모든 시험에서 가장 처음 치르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이미 당락이 결정된 후 순위를 결정하는 전시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가치를 지닌 시험이었다. 또한 과거제도에서 시험 과목의 의미는 경학[四書疑, 五經義], 문학[詩, 賦, 表], 시무[策] 등 관리에게 요구되었던 각기 다른 덕목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것이었지 그 중요도에 차서가 있었다고 판단하기엔 곤란할 것이다.

현재 시제집 및 과문집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근래에 정조대 사서의에 대해 조명한 연구³⁾가 나오는 등 의의(疑義) 과목에 대한 연구 또한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정조대에 이어 순조~철종으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에 시행된 과거시험에서 사서의 과목으로 출제된 시제(試題)의 경향성을

1) 대책문에 관한 연구는 박재경, 2014 『조선시대 책문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조선시대 대책(對策)의 중국 대책 수용양상」, 『정신문화연구』 40; 2015 「세종조 책문의 글쓰기 비교 연구 : 成三問, 申叔舟, 李石亭의 對策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42; 심재권, 2015 「조선조 과거시험과목인 책문의 내용 및 주제 분석」, 『韓國行政史學誌』 37; 김동민, 2014, 「正祖의 策問 : 春秋를 통해 본 조선조 春秋學의 문제의식」, 『東洋古典研究』 56 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 김동석, 2013 『조선시대 시권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77면; 이상욱, 2015 『조선시대 과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면.

3) 윤선영은 2016 「正祖代 四書疑 試題 小考」, 『泰東古典研究』 37에서 정조대에 출제된 66문 (問)의 사서의 시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사서의 시제를 다룬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그 시제들이 가지는 의미와 경향성을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서의 연구에서 순조~철종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사서의의 시제를 수록한 시제집이 집중적으로 편찬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이 무렵이기 때문이다.

시제집의 편찬은 정조의 명으로부터 시작⁴⁾되어 순조대부터 본격적으로 편찬되기 시작한다. 대책문 등 개인 문집에서도 흔히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다른 과목과 달리 사서의의 시제(특히 향시와 동당시)는 전적에 수록된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그 연구 가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서의의 제문이 수록된 과문집 또한 이 시기에 대거 발견된다. 그동안 사서의 제문에 관한 연구는 과거시험 답안지인 시권(試券)을 살펴보는 것에 주로 의존해왔다. 그러나 사서의 시권의 경우 시제가 거의 ‘問云云’으로 생략되어 있고, 거자(擧子)의 생몰년이 확실치 않은 경우가 많아 잔존하는 시권의 수에 비해 그 활용성이 크지 않았다. 이 시기에 편찬된 과문집을 시권 실물과 보완·상충하여 분석한다면 현재 ‘미상(未詳)’으로 처리된 수많은 사서의 시권의 정보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순조~철종대의 사서의 시제 382문(問)을 분석하여 출제 경향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조선시대 사서의 연구에 한발 더 다가가보고자 한다.

2. 순조~철종대의 시제집 및 과문집

사서의 시제가 수록된 과거시험 관련 전적은 크게 시제집과 과문집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시제집은 말 그대로 시제만을 수록한 기록물로, 철저한 목적성을 가지고 편찬되었다. 과문집은 시제와 답안을 비롯하여 전교(傳敎), 장계(狀啓), 방목(榜目) 등 과거 시험이 시행된 경위 및 시험의 전말에 관련한 여러 내용의 글을 함께 담고 있다. 소과의 합격자 명단인 사마방목과 대과의 합격자 명단인 문무과

4) 『일성록』, 1781년 2월 12일 기사. 박현순, 2016 「正祖의 『臨軒題叢』편찬과 御製 출제」, 『규장각』 48, 151면.

방목 등의 방목류 서적은 한성시(漢城試) 시제를 비교적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다 는 점과 합격자 명단을 비롯하여 과거시험에 관한 여러 사항을 수록하였다는 점에 서 시제집과 과문집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전적이라 할 수 있다. 종류별로 나누 어 살펴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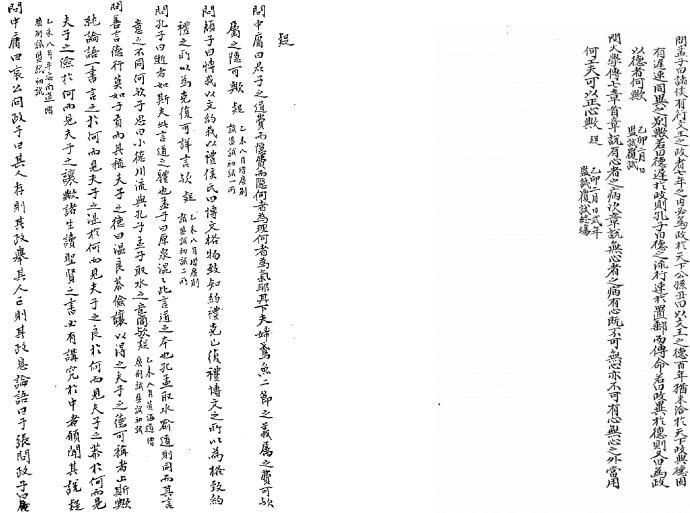
1) 시제집

시제 출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정조는 시제의 중복 출제를 막고 기출된 시제를 관리·보존하기 위해 시제집 편찬을 명하였다.⁵⁾ 이에 정조대부터 시작된 시제집 편찬은 순조대로 넘어오면서 뚜렷한 흔적을 남기게 된다. 이 시기에 편찬된 대표적인 시제집으로는 『과제각체(科題各體)』를 들 수 있다. 『과제각체』는 총 2종으로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순조대의 1828(戊子)-1833(癸巳)년까지(奎6989), 그리고 현종대의 1835(乙未)-1848(戊申)년까지(奎7299) 실행된 과거 시험의 시제를 수록해놓았다. 이 가운데 사서의 시제는 1828년과 1831년의 27문(奎6989), 1835-1837년, 1839-1840년, 1842-1846년, 1848년의 139문(奎7299)이 보인다.

『임현제총(臨軒題叢)』 또한 당대에 편찬된 시제집 가운데 하나로, 이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본 『임현제총』은 정조대(재위 : 1776-1780)의 시제를 담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 규장각본 『임현제총』은 총 4책(제 3책 결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임현공령』의 제1-4책이다. 사서의 시제는 제 4책⁶⁾에 보이며, 철종 6년인 1855년(乙卯)의 시제 2문을 수록하고 있다.

5) 윤선영, 앞의 논문(2016), 40면.

6) 박현순은 앞의 논문(2016) 152-153면에서 『임현제총』 각 책 사이의 차이점에 대하여 논하였는데, 제1-2책이 어제(御製)를 위주로 수록한 것과 달리 제 4책은 시관(試官)이 각종 시험에서 출제한 시제들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정조대의 왕명으로 시작된 시제의 기록이 후기로 갈수록 더욱 활발해져가던 상황 하에서 어제 뿐만이 아니라 시관지 제(試官之題) 기록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대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科題各體(奎7299)>

<臨軒題叢(奎11437)>

2) 과문집

이 시기의 대표적인 과문집으로는 『임현공령(臨軒功令)』(奎11437)을 들 수 있다. 『임현공령』 또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규장각 소장 『임현공령』은 총 74책으로 1777년(정조1)부터 1874년(고종 11)까지의 시제를 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사서의 시제는 20책과 66책에 보인다. 20책에는 1813(癸酉)-1816(丙子)까지, 66책에는 1803(癸亥)-1805(乙丑)까지의 사서의 시제가 수록되어 있다.⁷⁾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임현공령』(古貴3647-5-1-4)은 총 4권으로 사서의는 권4에 보인다. 이 책에는 1813년(癸酉)-1816년(丙子), 1818년(戊寅), 1819년(己卯), 1822년(壬午)년의 사서의 시제 90여문 및 100여개의 제문이 수록되어 있다. 두 책에 공통적으로 실려 있는 1813년-1816년까지의 시제 및 제문

7)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해제에 따르면 시제들을 연도순으로 나열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사서의 시제의 경우 사마방목과 비교해 본 결과, 66책이 20책보다 앞선 연도의 시제를 담고 있다. 이 책의 편찬 순서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은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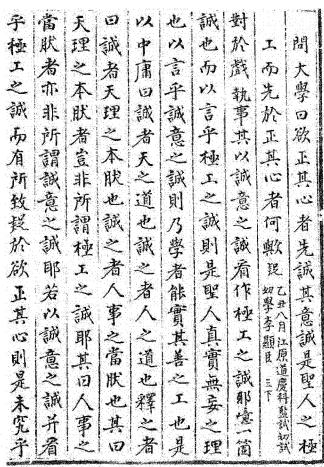
특히 순조대에 『충청좌도연기도회감시과작(忠淸左道燕岐都會監試科作)』(奎9853), 『해주동당초시과작(海州東堂初試科作)』(奎9855) 등 외방공도회(外方公都會) 관련 전적 및 동당시의 초시 과작을 모아놓은 전적들이 다수 편찬된 사항은 눈에 띠는 점⁸⁾이다. 공도회는 각 지역의 관찰사가 도내의 유생을 시취(試取)하여 생원·진사 시 복시에 응시할 자격을 준 시험이다. 『충청좌도연기도회감시과작』은 1813년(순조13) 9월에 충청좌도 연기도회에서 열린 경과증광감시(慶科增廣監試)의 합격자 명단이다. 사서의 경우 『대학』과 『중庸』이 『예기』에서 분장된 것 등을 묻는 시 제⁹⁾와 생원 1등을 차지한 유학 권용빈(權用賓)의 제문을 싣고 있다. 『해주동당초시과작』은 1813년 증광문과의 초시를 시행한 황해도 해주지역의 과작들을 모은 필사본으로, 사서의 과목의 시제¹⁰⁾가 수록되어 있다. 외방공도회나 대과 초시와 관련 한 전적들이 매우 드문 상황에서 이 시기에 이와 같은 류(類)의 전적들이 출지어 편찬되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8) 이외에도 당시에 편찬된 과문집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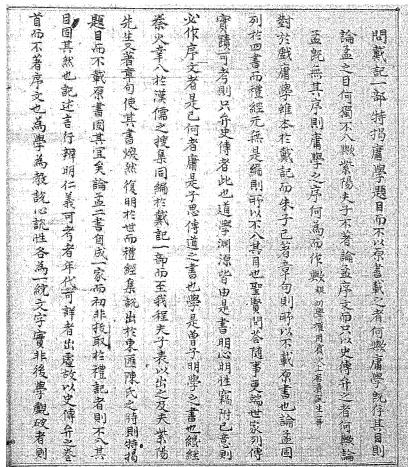
연번	서명	내용	소장기관(관리번호)
1	晋州公都會科作	1813년(순조1), 賦·詩 시제 및 제문 수록	서울대학교규장각 (奎3253)
2	平壤都會科作	1824년(순조24), 賦·詩 시제 및 제문 수록	서울대학교규장각 (奎3253)
3	定州都會科作	1824년(순조24), 賦·詩 시제 및 제문 수록	서울대학교규장각 (奎9854-2)
4	廣州府公都會科作	1824년(순조24), 賦·詩 시제 및 제문 수록	서울대학교규장각 (奎11434-1)
5	水原府公都會初場科作	1825년(순조25), 賦·詩 시제 및 제문 수록	서울대학교규장각 (奎11434-2)
6	覆試科作	1827년(순조27), 춘천부공도회 관련, 賦題 및 제문 수록.	국립중앙도서관 (古朝26-55)

9) 『忠淸左道燕岐都會監試科作』(奎9853), “問. 戴記一部, 特揭庸學題目, 而不以原書戴之者, 何歟? 廉學旣存其目, 則論孟之目, 何獨不入歟? 紫陽夫子不著論孟序文, 而只以史傳弁之者, 何歟? 論孟旣無其序, 則庸學之序, 何爲而作歟?”

10) 『海州東堂初試科作』(奎9855), “問. 子曰,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又曰, 苟有用我者, 莖月而已可也, 三年有成. 夫一日克復之功, 天下歸仁, 則其曰菑月而可, 三年有成者, 何歟?”



<臨軒功令(奎11437)>



<忠清左道燕岐都會監試科作(奎9853)>

3) 기타

그 외에 개인 문집에도 사서의 시제가 실린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굴산문고(橘山文庫)』는 조선 후기의 문신인 굴산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시문집으로, 1841년부터 1865년까지의 저술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총 16책으로 과거시험의 시제는 제 7책의 「책제(策題)」, 「제록(題錄)」 부분에 보이고 「제록」에는 사서의 시제를 비롯하여 義, 詩, 賦, 論의 시제가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사서의 시제는 1844년 평안남도 순천(順川)에서 치러진 별시감시와 상원(祥原)에서 치러진 문과 초시, 그리고 1854년의 식년감시초시, 1859년의 경과증광별시문과에서 출제된 총 4문을 기록하였다. 이유원은 1841년에 문과 정시(廷試)에 입격하였고, 「제록」에 수록된 시제가 출제된 1844년에는 이미 종6품의 관직인 문신겸전수관(文臣兼宣傳官)을 역임하고 있었다. 즉 여기에 실린 시제들은 그가 거자가 아닌 시관으로 시험에 참여하면서 수록하게 된 시제들이다. 실제로 1844년의 방목을 살펴보면 당시 이유원이 경시관(京試官)으로써 평안남도에 파견되어 시험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¹¹⁾ 당대에는 충청좌도·전라좌도·경상좌도·평안남도의 경우 시관으로 경시관

을 파견하였다.¹²⁾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만한 사실은, 1855년 식년감시초시에 출제된 사서의 시제가 이유원의 「제록」과 사마방목에 서로 다르게 기록되었다는 점¹³⁾이다. 당시의 시관 또한 이유원이었고, 사서의 외에 詩, 賦, 義의 시제는 모두 동일하다. 이는 사서의 시험의 여러 예비 문제들 가운데 시관들이 합의하여 문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 기록이 달라진 경우이거나 추후의 기록에 있어 혼동했을 경우 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이 시제들은 그가 시관을 역임하면서 어떤가에 기록해 둔 것을 이유원의 후손이 이 책을 편찬하면서 문집에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 문집에서 제문 없이 시제만을 기록한 보기 드문 예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원·진사시의 합격자 명단인 『사마방목(司馬榜目)』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이 시기에는 순조대의 『승정삼신유춘성상즉위경과별시증광사마방목(崇禎三辛酉春聖上卽位慶科別試增廣司馬榜目)』(1801) 등 18종, 현종대의 『승정기원후사을미경과증광사마방목(崇禎紀元後四乙未慶科增廣司馬榜目)』(1835) 등 8종, 철종대의 『승정기원후사경술증광사마방목(崇禎紀元後四庚戌增廣司馬榜目)』(1850) 등 6종, 총 32종의 사마방목이 편찬되었다. 식년시 21종과 증광시 11종이며 1813년에 치러져야 할 식년시가 1814년(甲戌)에 퇴행하여 치러졌음을 알 수 있다. 32종의 목록은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는다.¹⁴⁾

전술한 책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崇禎紀元後四甲辰增廣司馬榜目』附錄(1844).

12) 『大典會通』禮典, 諸科, 式年文科初試, “鄉試, 江原道·黃海道則都事, 忠淸·全羅·慶尙右道則都事, 左道則京試官, 平安·咸鏡北道則都事, 平安南道則京試官, 咸鏡南道則評事試取, 諸道各參試官二員, 觀察使以文臣守令差送.”

13) 『崇禎紀元後四乙卯式司馬榜目』附錄(1855)에는 式年監試初試(二所)의 문제가 “問. 廉學表裏之書, 而大學曰君子無所不用其極, 中庸言君子時中, 同是君子之道, 而一言極一言中者, 何也? 言極則似過於中, 言中則不及於極, 何所取衷歟?”로, 『橘山文庫』 제 7책 「題錄」에는 “問. 子曰, 行夏之時, 乘殷之輅, 服周之冕, 樂則韶舞. 夫子於四代, 各舉其一者, 何歟?”로 기록되어 있다.

14) 최진우, 1994 『朝鮮時代 生員·進士 연구 : 司馬榜目的 분석』,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에서 조선시대에 편찬된 사마방목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순조~철종대 편찬 사서의 수록 전적 목록

연번	종류	서명	내용	소장기관(관리번호)
1	시제집	科題各體	순조대(1828, 1831) 시제 모음집. 六體+論題 수록.	서울대학교규장각 (奎6989)
2	시제집	科題各體	현종대(1835-1848) 시제 모음집. 六體+論題 수록.	서울대학교규장각 (奎7299)
3	시제집	臨軒題叢(총 4책)	순조~철종대 시제 모음집. 4책에 1855년의 사서의 시제 수록.	서울대학교규장각 (奎11437)
4	과문집	臨軒功令(총74책) (零本)	순조대~고종대의 과문집. 1803-1805년(권66), 1813-1816년(권20) 사서의 시제 및 제문 수록.	서울대학교규장각 (奎11437)
5	과문집	臨軒功令(총 4책)	순조대(1813-1822)의 과문집. 권4에 사서의 시제 및 제문 수록.	국립중앙도서관 (古貴3647-5-1-4)
6	과문집	忠清左道燕岐都會監試 科作	1813년(순조1), 공도회 관련 과작. 사서의 시제 및 제문 수록.	서울대학교규장각 (奎9853)
7	과문집	海州東堂初試科作	1813년(순조1), 공도회 관련 과작. 사서의 시제 수록.	서울대학교규장각 (奎3253)
8	개인 문집	橘山文庫(총 16책)	글산 이유원의 시문집. 7책에 1844, 1855, 1859년 사서의 시제 수록.	서울대학교규장각 (古 4254-3)

이상에서 순조~철종 시기에 편찬된 여러 가지 형태의 과거 관련 전적들을 살펴보았다. 시제집과 과문집, 사마방목은 그 편찬 목적에 따라 책의 구성과 서술 방식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시제집의 경우 특정 년도나 시험 등에 출제된 시제만을 수록한 책이므로 여러 문체의 시제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동일 년도의 다른 문체 시제 비교, 동일 문체의 여러 년도 시제 비교, 경향(京鄉) 간의 시제 비교 등 시제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 다만, 시종(試種)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만이 담겨 있고 제문이 수록되어 있지 않은 단점이 있다. 과문집은 시제와 제문을 함께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며 시제집에 비해 비교적 해당 과거 시험에 대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하나의 문체(주로 책문) 혹은 한 번의 시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포괄적인 연구에 있어서는 아쉬운 면이 있다. 물론 이러한 점은 특정 문체 또는 시기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방목류 전

적은 특정 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담고 있으며 특히 사서의 시제를 안정적으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사서의 연구에 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제문 및 향시 시제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문과 방목에서는 초시 시제인 사서의를 거의 생략하고 있어 아쉬운 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순조~철종대에는 사서의를 비롯하여 여러 과제(科題) 및 제문을 담은 전적들이 대거 편찬되었으며 이러한 책들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당대에 실행된 과거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기록으로 남기려 했던 시대 상황과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도회와 관련한 전적들은 과문집의 활발한 편찬과 더불어 그 외연이 확장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순조~철종대의 사서의 시제 출제 경향

여기에서는 순조~철종대에 사서의 시험으로 출제된 382문(問)의 시제를 분석하여 시제 출제의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과 감시의 한성시(漢城試) 문제는 이 때 편찬된 32종의 사마방목을 참고하였으며, 그 외의 향시 시제 및 공도회, 대과 초시의 시제는 Ⅱ장에서 전술한 여러 시제집과 과문집을 참고하였다. 그 결과 각 책마다 출제 빈도에 있어 상이점을 보였고, 높은 출제 빈도를 보인 특정 편장(篇章)들을 마주할 수 있었다.

총 382문 가운데, 하나의 책에서 출제된 문제는 311문이었으며, 2개의 책에서 출제된 문제는 총 53문이었다. 둘 이상의 책을 결합하여 낸 경우보다 한 책에서 출제한 경우가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책에서 출제된 311문 가운데서는 『논어』(117) > 『중용』(91) > 『맹자』(64) > 『대학』(37)의 순서로 출제되었다. 『논어』의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중용』 또한 책의 분량에 비해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었다. 『중용』은 한성시보다는 향시에서 주로 출제된 것이 특이점인데, 적은 분량에서 출제 빈도가 높다보니 다른 책에 비해 중복된 문제가 많은 편이다. 두 책

에서 한 구절씩을 내어 비교한 53문 가운데는 『논어』·『맹자』(19)·『논어』·『중용』(15)·『대학』·『중용』(10)·『맹자』·『중용』(9)·『논어』·『대학』(2)의 순으로 출제되었다. 『맹자』와 『대학』을 결합한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 『논어』와 『중용』의 결합이 많은 것은 『중용』의 저자로 여겨지는 자사(子思)가 공자의 손자라는 점에서, 공자의 사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저서라고 여겨진 측면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맹자』와 『중용』의 경우는, 자사와 맹자가 성인의 도를 전수한 가장 마지막 아현(亞賢)이라는 점에서 윗대의 설과 비교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된 점, 두 책의 주자주의 해석으로 인하여 조선 후기 호락논쟁의 불을 지피게 된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3책 이상에서 출제된 문제 또한 8문이었으며 특정 구절이 아닌 경서 전체를 아우르거나(6문), 사서가 아닌 『주역』·『계사전』이 인용된 4문이 출제되었다. 그리고 경서의 원문이 아닌 특정 학자의 설이 인용된 경우도 많이 있었다. 당연하게도 주자(朱子)의 설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주자의 주석은 총 69문에서 출제되었으며 정자(程子)의 주석 또한 30문에서 인용되었다. 이외에 여러 학자들의 설이 문제에 출제되었다. 이는 4)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논어』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논어 - 개념어의 정의와 선후고하(先后高下)

『논어』는 총 382문 가운데 157문(41%)이 인용되었다. 이는 정조대에 총 문제의 절반 이상인 55%가 『논어』에 집중¹⁵⁾되었던 것보다는 조금 그 비중이 떨어지지만, 역시나 가장 높은 출제 빈도를 보인 것이다. 이를 조금 더 세분화하여 각 편에서 몇 회나 출제 되었는지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⁶⁾

15) 정조대에 출제된 문제에 대해서는, 윤선영, 앞의 논문, 15-30면.

16) 여기에 나온 각 편의 출제 횟수는 단독출제 및 2책 이내에서 인용된 구절이 있을 경우만을 포함한 것이다. 개념어를 중심으로 한 여러 책에서의 출제, 총경(總經)의 경우는 제외하였다. 같은 편에서 여러 장이 예시로 나온 경우 주개념어가 들어가 있는 편장으로 분류하였고, 동일한 구절이 사서 내에서 여러 번 나오는 경우는 문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표 2〉 순조~철종대 사서의 시제 가운데 『논어』 각 편의 출제 빈도

학이	위정	팔일	이인	공야장	옹야	술이	태백	자한	향당
11	20	7	11	3	13	12	6	17	0
선진	안연	자로	현문	위령공	계씨	양화	미자	자장	요월
8	16	1	0	12	1	10	2	3	1

『논어』는 여러 장이 비교적 골고루 출제되어, 특정 구절이 중복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각 편 사이에는 출제빈도에 차이를 보였는데, 10.향당, 13.자로, 14.현문, 16.계씨, 20.요월편은 거의 출제율이 0%에 수렴하였다. 공자의 생활 습관 등을 주로 다룬 향당을 제외하고 출제율이 낮은 나머지 4편은 모두 하십편에 속하는 편장이었다. 상십편은 고르게 출제된 반면에 하십편은 특정편에 집중된 것이다. 이는 상십편이 전국 초기에 편찬되었으며, 하십편은 전국 말기에 편찬된 것이라는 최술(崔述)의 견해와 더불어 원래의 『논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십편을 하십편보다 중요시 여겼던 견해¹⁷⁾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논어』에서 출제된 157여 문의 시제를 살펴본 결과, 개념어와 관련한 질문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되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개념어 간 선후고하와 관련한 질문들(34문)이 주를 이루었으며, 동일한 개념어에 대한 서술이 달라지는 것에 관한 질문(16문) 또한 자주 출제되었다. 결론적으로 개념어와 관련한 질문은 총 50문으로 이는 『논어』 전체 문제의 약 32%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한 문제가 『맹자』에서는 8문(9%), 『대학』에서는 6문(12%), 중庸에서는 19문(15%) 정도 출제된 것으로 보아, 이는 『논어』가 다른 책에 비해 개념어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출제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차서를 중시하는 유가 논리에 입각했을 때, 용공차제(用工次第), 즉 공력을 쓰는 차례는 학자들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시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개념어의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17) 이강재, 1998 『論語 上十篇의 解釋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면.

언급 순서, 언급 유무, 정의의 이동(異同) 등 개념어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은 학자들의 경문 학습에 있어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었다. 예시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問 論語, “子曰興於詩，立於禮，成於樂”，朱子曰，“此非小學傳授之次，乃大學終身所得之難易先後淺深次序。夫爲小學者，十三學樂誦詩，二十而後學禮”，則詩禮既爲小學之道，而又爲大學之道，何歟？抑其詩其禮其樂，亦有大小之不同歟？小學則先樂後禮，大學則先禮後樂，其義亦可詳言歟？¹⁸⁾

- 戊申九月平安道清南式年監試初試(1849) -

위는 『논어』·『태백』에 나오는 “공자께서 시에서 흥기하고 예에서 서며 악으로 완성한다[興於詩，立於禮，成於樂].”는 문장에 대한 주자의 주석을 서술하고, 소학(小學)과 대학(大學)으로 구분하여 詩·禮·樂의 차서에 대해 질문한 것이다. 『예기』『내칙(內則)』에는 13살에 음악과 시를 배우고, 20살 이후에 예를 배운다고 하였으니 이를 따르자면 樂·詩·禮의 차서가 된다. 주자는 이 내용을 자신의 주석에 인용하고 논어에서의 詩·禮·樂의 차서는 소학에서 전수하는 순서가 아니라 곧 대학에서 종신토록 터득하는 난이(難易)와 선후(先后), 천심(淺深)의 차서라고 설명하며 두 책 사이의 불일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 질문은 언뜻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자들은 크게 세 가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했다. 시와 예는 이미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인데 또한 종신토록 터득해야 하는 도에 속하는 이유, 어려서부터 배우는 소학의 詩·禮·樂과 종신토록 배우는 詩·禮·樂의 차이점 여부, 그리고 詩·禮·樂의 차서가 서로 다른 이유이다.

◎ 問 顏淵問仁，夫子以克復答之，仲弓問仁，夫子以敬恕告之，二子之所問同，而夫子之所答不同，何歟？克復之屬於乾道，敬恕之合於坤道，亦可指言歟？至於司馬牛之間仁，而夫子之告以言訥者，又何也？言訥之工，亦有乾道坤道之可言歟？¹⁹⁾

- 戊申九月咸鏡南道式年監試初試(1849) -

18) 『科題各體』(奎7299)

19) 『科題各體』(奎7299)

위는 인(仁)이라는 개념에 관한 안연과 중궁의 동일한 질문에 대한 대답의 차이점과 이를 건도(乾道) 및 곤도(坤道)로 나눈 주자의 설에 관한 질문을 염두해한 문제이다. 부자께서는 안연이 인(仁)에 대해서 문자 극기복례(克己復禮)로 대답하였고, 중궁이 인에 대해 문자, 경(敬)과 서(恕)로 대답하였다. 안연의 질문에 관하여서 공자는 인이란, 자신의 사욕을 이겨 예로 돌아감[克己復禮]이라고 설명하며,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말라고 하였다. 인을 행하기 위한 전제의 개념으로 예를 내세운 것이다. 그런데 중궁이 물었을 때 공자께서는 밖에 나와서는 큰 손님을 맞이하는 듯이하고, 백성에게 일을 시킬 때는 큰 제사를 받드는 것과 같이 하며,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대답하였다. 큰 손님을 맞이하는 듯 하는 것과, 큰 제사를 받드는 듯이 하는 것은 곧 경(敬)을 주로 하는 것이며,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는 것은 곧 서(恕)를 주로 하는 것이다. 안연의 동일한 질문에 예로 설명한 것과는 달리, 중궁에게는 경과 서를 대입하였다. 주자는 『논어집주』에서 이들을 건도와 곤도로 나누고는 안연과 중궁의 학문의 수준 차이를 여기에서 볼 수 있다²⁰⁾고 하였다. 주자 혹은 선유라는 특별한 언급 없이 주자의 주석을 질문에 그대로 노출시킨 점은 그만큼 주자의 설이 출제자와 응시자 모두의 기본 상식 정도였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사마우의 동일한 질문에 대해 인한 자는 그 말을 참고 굽뜨게 한다[訥]고 대답한 점과 이를 건도와 곤도로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추가로 질문하였다. 거자들은 인이라는 개념과 禮·敬恕·訥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건곤의 도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대답해야 했고, 이것이 진실로 주자의 대답처럼 각 제자들의 학문의 수준 차이로 연유된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혀야 했다.

이상 『논어』에서 출제된 개념과 관련한 문제를 살펴보았다. 『논어』에서는 「학이」의 “行有餘力，則以學文”，「위정」의 “知之爲知之，不知爲不知，是知也。” 「옹야」의 “博學於文，約之以禮”의 문장에서 개념의 차서에 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

20) 『論語集註大典』권12, “愚按，克己復禮，乾道也，主敬行恕，坤道也，顏冉之學，其高下淺深，於此可見。然學者誠能從事於敬恕之間，而有得焉，亦將無已之可克矣。”

제되었다. 이 외에도 3회 이상 반복 출제된 문제의 대부분 또한 이와 관련한 것이었다. 반면 『논어』 속에 등장하는 여러 고사나 인물평에 관한 문제의 출제빈도는 낮은 편이었다.

2) 맹자 - 인간의 본성 탐구와 사회제도의 변천

『맹자』는 총 382문 가운데 98문(26%)이 출제되었다. 『맹자』는 다른 경서에 비해 인물과 고사에 관한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문장이 장황한 특징이 있다. 사서 가운데 텍스트의 양이 가장 많은 것에 비해서는 문제 출제 빈도가 낮은 편이라고 하겠다. 각 장의 출제 빈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순조~철종대 사서의 시제 가운데 『맹자』 각 장의 출제 빈도

양혜왕(상)	양혜왕(하)	공손추(상)	공손추(하)	등문공(상)	등문공(하)	이루(상)
11	3	23	0	6	1	4
이루(하)	만장(상)	만장(하)	고자(상)	고자(하)	진심(상)	진심(하)
4	1	6	11	7	8	5

위에서 보이듯이, 각 장마다 출제빈도의 편차가 컸음을 알 수 있다. 저자인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한 철학가였던 만큼 본성에 관한 논쟁 등 철학적인 내용을 담은 공손추(상), 고자(상·하) 등에서 문제 출제가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반면 공손추(하), 등문공(하), 만장(상) 등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다. 『맹자』의 첫 편인 양혜왕(상)에서도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는 왕도정치의 이상을 향한 당대 지배층의 관심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닐까 한다.

『맹자』에서 출제된 98문의 문제를 살펴본 결과, 사단칠정(四端七情)과 심성(心性) 등 철학적 개념과 관련한 문제들이 주로 출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맹자』의 양이 워낙 방대하고, 여러 방면의 내용을 담은 책이다 보니, 철학적 사유와 관련하지 않은 인물에 관한 평가, 토지 제도 등 현실 세계와 관련한 문제들도 다양하게 출제되었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問. 孟子曰，“犬之性猶牛之性，牛之性猶人之性與？”是謂人物之性，各不同也。蓋性理也，生氣也。理同而氣異，以氣言之，則人之氣全且通，物之氣偏且塞，固有偏全通塞之殊。然以理言之，則人之性卽此性，物之性亦此性，何嘗有人物之別，而孟子歷舉人物之性，詰其猶與者，何也？然則仁義禮智，人獨猶之，而在草木禽獸，則無彷彿之可言耶？中庸曰，“天命之謂性”又曰，“自誠明，謂之性”既以性謂天所命，而又曰自誠明謂之性，何也？天命之性·自誠之性，同歟異歟？²¹⁾

- 慶尙右道式年監試初試(1803) -

위 문제는 조선후기 성리학자들 가운데서 논쟁이 되었던 사람과 동식물의 본성이 같은지 다른지의 여부, 즉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과 관련한 문제이다. 호락논쟁으로도 불리었던 이 팽팽한 토론은 인물성이론을 주장한 한원진(韓元震, 1682-1751)과 인물성동론을 주장한 이간(李東, 1677-1727)의 대립으로 전개되었다. 『맹자』에서 이와 관련한 부분은 고자가 “생(生)은 성(性)이다[生之謂性]”라고 말한 데 대한 고자와 맹자의 토론으로 시작된다. 타고난 것이 곧 본성이라는 고자의 말에, 맹자는 흰 것을 희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지, 그렇다면 흰 깃털[白羽]의 희과 흰 눈[白雪]의 희가 같은지를 되물었다. 고자가 모두 그렇다고 답하자, 맹자가 그렇다면 개의 성이 소의 성과 같으며 소의 성이 사람의 성과 같은지 물었고 고자의 별다른 대답 없이 이 장은 끝이 난다.²²⁾ 동물성이론의 입장에 섰던 맹자의 견해를 우선적으로 서술한 뒤, 출제자는 이에 관한 반론을 제기한다. 기(氣)로써 말해보자면 사람과 동식물간 편전통색(偏全通塞)의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이(理)로써 말해보자면 사람의 본성과 동식물의 본성에 어찌 구별을 둘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용』의 “하늘이 명하여준 것을 성이라고 한다[天命之謂性]”는 구절을 서술하며 이번에는 동물성동론의 입장으로 잠시 저울추를 기울인다. 이 구절에 대해 주자는 사람과 동식물의 성은 본래 같지 않을 수 없으며, 동식물도 건순오상(健順五常)의 덕이 있다고 하였다.²³⁾ 즉, 기질에 치우침이 있어 자연의 본성을 온

21) 『臨軒功令』 권66 (奎11437)

22) 『맹자』·『고자상』, “告子曰，生之謂性。孟子曰，生之謂性也，猶白之謂白與？曰，然。白羽之白也，猶白雪之白，白雪之白猶白玉之白與？曰，然。然則犬之性猶牛之性，牛之性猶人之性與？”

23) 『中庸章句大典』上, “天以陰陽五行，化生萬物，氣以成形而理亦賦焉，猶命令也。於是，人物之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니, 치우친 것은 기질이지 본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맹자』와 『중용』에 나오는 각기의 주자의 주석에서는 기본적으로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의 다름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타고난 본성은 같다는 점에 있어서 그 대상을 인물로만 한정할 것인가, 혹은 동식물까지 포함할 것인가로 논의가 갈리게 되는 것이다. 한원진과 이간을 따랐던 학자들은 주자의 이 설을 각기 자신들의 입장에 맞추어 해석함으로써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벌여왔고 이 논쟁은 시험의 문제로 내기에 좋은 소재가 되었다. 출제자는 문제를 냄에 있어 자신의 견해를 최대한 감추고 양쪽의 입장을 나란히 제시해 줌으로써 나름의 균형을 보여주었다. 거자들은 이에 대해 평소 자신이 품고 있었던 견해를 발휘하기 좋은 기회였던 것이다.

◎ 問 孟子曰，“夏后氏五十而貢，殷人七十而助，周人百畝而徹”，夫井田之制，三代共之，而有此貢助徹之不同，何歟？既曰五十七十百畝，則必將改其畎澗變其溝洫，三代之迭與何爲此煩擾，無蓋於民之事歟？²⁴⁾

- 壬寅九月平安道淸南式年文科初試(1843) -

위 문제는 하은주(夏殷周) 삼대에 걸친 토지제도와 관련하여 정전제를 기반으로 한 세 나라의 토지제도의 변천 사유에 대해 물어본 것이다. 하나라는 50묘(畝)의 토지를 주고 공법(貢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고, 은나라는 70묘에 조법(助法)으로, 주나라는 100묘에 철법(徹法)으로 토지세를 납부하였다. 나라별로 각기 제공해주는 토지 수가 다르고 세법의 용어만 차이가 있을 뿐, 그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1/10의 조세를 거둔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자세히 따져보면, 세 가지 세법이 정확히 1/10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공법은 50묘당 5묘이니 1/10이 되지만 은나라 때는 630묘의 토지를 정(井)자의 모양으로 9개 구역으로 나눴으니, 한 구역당 70묘가 된다. 여덟 집에 각기 70묘씩 나누어 주고 한 가운데인 공전(公田)은 공동으

生，因各得其所賦之理，以爲健順五常之德，所謂性也。”

24) 『科題各體』(奎7299)

로 경작하며 공전에서 나오는 세금만을 거뒀기 때문에 1/9이 된다. 주나라 때는 은나라 때와 그 제도는 동일하나 한 집에 100묘를 받았고, 공전 100묘 가운데 20묘를 여사(廬舍)로 만들었으니 실질적으로 약 1/11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이러한 정전법(井田法)은 하·은·주로부터 내려와 조선시대 학자들의 토지개혁 방안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으로, 그는 당시의 조세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정전제를 주장하였다. 물론 정약용의 정전제는 주나라의 제도를 본 따 만든 것이나, 조선과 주나라는 농업 인구의 규모나 농지의 형세 등이 달랐기 때문에 그는 조선의 실정에 맞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가에서 정한 토지가 아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전(私田)을 기준으로 하고 노동력이 있는 자에게만 경작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건이다. 즉, 토지 위주가 아닌 인간 위주의 정책을 편 것이다. 이 문제가 출제되었던 1843년에는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 1622-1673) · 성호(星湖) 이익(李漵, 1681-1763) · 정약용 등으로 전해 내려오는 중농학파의 주장이 이미 널리 알려진 후였고, 거자들 또한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었을 것이다. 문제의 마지막에서 이처럼 번거로운 변천이 민사(民事)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를 물은 점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회 제도 관련 문제의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난다.

이상 『맹자』에서 출제된 문제의 일부를 살펴보았다. 철학적 사유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53문, 54%)된 가운데 위와 같이 실생활과 연관된 문제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외에 浩然之氣(5회), 存其心 養其性(4회), 伯夷 · 柳下惠(4회) 등의 구절에서 동일한 문제가 여러 차례 출제되었다. 특히 여러 사회제도 및 왕정(王政)에 관한 문제(12문)는 다른 책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문제 유형이며, 백이 · 숙제를 비롯하여 여러 고사 속 인물들의 인물평(16문)과 관련한 문제가 많이 출제된 점 등은 『논어』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3) 대학 · 중용 - 팔조목(八條目)의 문장 구조와 체용(體用)의 분속(分屬)

『대학』과 『중용』에서는 각기 52문(13%), 134문(28%)이 출제되었다. 『대학』은

경문 1장에서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었고, 대체적으로 문제의 길이가 긴 것이 특징이었다. 『중용』의 경우 본문의 양이 적은 것에 반해 출제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책에 비해 중복 시제가 많았다. 전(傳) 20장의 양이 다른 장에 비해 길이가 훨씬 긴 것 등 각 장마다 길이 차이가 있음에도 비교적 여러 장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다. 그리고 본문 외에 주자가 지은 서문(序文)에서 문제가 출제된 경우가 꽤 있었는데 이는 『중용』의 협소한 분량에서 오는 문제 출제의 한계 속에서 시관들이 찾게 된 나름의 돌파구라고 여겨진다. 두 책은 『예기』에서 분장되어 나온 공통된 배경이 있으므로 이에 관해 두 책을 엮어 묻는 문제가 많았다. 『대학』과 『중용』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3장을 각기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순조~철종대 사서의 시제 가운데 『대학』과 『중용』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편장

연번	대학	중용
1	明徳(경문1장, 12회)	君子之道, 費而隱(전1장, 8회)
2	格物致知(경문 1장, 8회)	喜怒哀樂(전1장, 7회), 魯飛戾天(전12장, 7회)
3	絜矩之道(전10장, 7회)	戒懼慎獨(전1장, 6회), 濡博如天(전31장, 6회)

『대학』의 경우 경문 1장의 삼강령(三綱領) · 팔조목(八條目)과 관련한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되었으며, 문장의 구조에 관한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 이는 경문 1장이 공자의 말을 증자가 기술한 것이라 한 주자의 말에 의거, 증자의 문인들이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전10장에 비하여 중요시 여겼던 까닭이 아닐까 한다. 그 외에도 군자의 혈구지도(絜矩之道)에 관한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 『중용』에서도 또한 군자의 행동 규범과 군자의 도에 관한 구절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다.

◎ 問 大學曰，“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先治其國” 不曰平天下，而曰明明德於天下者，何歟？此所謂明德者，卽己之明德歟？指人之明德歟？若謂之己之明德，則平天下者，卽新民之事也，豈可屬於己之明德乎？謂之人之明德，則謂之平天下足矣，何以謂明明德

於天下歟？章句釋之曰，使天下之人，皆有以明其明德，以其字觀之，則當屬之於人，而或問曰，合體用之全，而一言而舉之，此則似兼人而已，言當何所適從歟？願聞其說。²⁵⁾

- 慶尙右道慶科增廣監試初試(1803) -

위는 대학 경문 1장의 팔조목 가운데 명명덕(明明德)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한 것이다. 첫 번째 질문은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平天下]고 말하지 않고,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힌다[明眞德於天下]고 말한 이유에 대한 것이다. 이는 경문 1장의 ‘古之欲明眞德於天下者，先治其國’과 전문 10장의 ‘所謂平天下在治其國者’라는 문장의 차이에 기인한다. 즉 ‘明眞德於天下’하는 것과 ‘平天下’하는 데 있어서 ‘治其國’이라는 조건이 있음을 동일하다. 경문의 삼강령 팔조목을 해석한 전문에서, 그 서술이 경문과 다른 이유는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사항이다. 또한 출제자의 질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경문에서는 ‘先治其國’이라고 하여 이를 앞 구절의 선행조건으로 보았으며, 전문에서는 ‘在治其國’이라고 하여 필요조건으로 본 차이점도 있다. 이처럼 팔조목의 구조와 각 항목의 표현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은 경문 1장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문제의 유형이다.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을 보충하고 확장한 것으로, 明眞德에 있어 明德의 주체가 자기 자신인지 아니면 타인인지의 여부이다. 평천하라는 것은 곧 백성을 새롭게 함과 동일한 강령의 하나이므로 그 주체를 자기 자신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게 된다. 반면 다른 사람의 명덕이라면, 평천하라고만 말해도 되는 것을 굳이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힌다고 서술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구심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장구(章句)』와 『혹문(或問)』에서 달라진 주자의 설을 언급하며, 과연 명덕의 주체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각기의 논거를 한 가지씩 추가로 설명하였다. 이처럼 출제자들은 문제에 있어 최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고 제3자의 입장에서 논란이 되는 구절의 각기 다른 주장의 논거를 균형 있게 다루려고 노력하였다.

◎ 問 中庸曰，“君子之道，費而隱”，所謂費隱一物歟？二物歟？或曰費是形而下者，隱是形而上者，費果形而下之氣，而隱果形而上之理歟？若以費隱分屬於理氣，則朱子之以

25) 『臨軒功令』 권66 (奎11437)

費隱分屬體用何歟? 岳理本有體無用, 以費之氣爲用, 氣本有用無體, 以隱之理爲體歟?
抑理氣各自有體用, 而獨於費隱之理氣, 理無用而以氣爲用, 氣無體而以理爲體歟?²⁶⁾
- 式年監試會試(二所) (1849) -

위는 『중용』에서 가장 많은 중복 문제로 출제된 ‘君子之道, 費而隱’과 관련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같은 장의 뒤 구절인 ‘鳶飛戾天, 魚躍于淵’과도 함께 묶여 주로 출제되었다. 『중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도(道)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구절로, 여기에서는 이기(理氣)와 체용(體用)의 분속(分屬)과 관련하여 질문하였다. 출제자는 ‘혹왈(或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費)와 은(隱)에 관한 혹자의 설을 언급하였는데 여기서의 혹자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주자였다. 이는 『주자어류(朱子語類)』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 이 책에서 “비(費)는 형이하의 것이고 은(隱)은 형이상의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주자는 비와 은을 형이하와 형이상이라고만 말했을 뿐, 문제에서처럼 形而下之氣, 形而上之理라고 표현하지는 않았다. 다만 『어류』에서 “비란 물(物)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은은 물의 이(理)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라는 혹자의 말을 인용하며 비은을 물과 이로 대거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출제자는 다시 체용(體用)에 관한 주자의 설을 서술하였다. 『집주』에서 주자는 위 구절에 대해 “비는 용이 넓음이요, 은은 체가 은미함이다”²⁷⁾라고 풀이하였다. 이에 대해 출제자는 이(理)에는 본래 용이 없는데 비의 기가 용이 되며, 기에는 본래 체가 없는데 은의 이로 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기에 각기의 체용이 있는데 유독 비은의 이기에만 달리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출제자는 각기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주자의 설을 차례로 언급하고 이에 대해 생길 수 있는 의구심을 내세웠다. 거자들은 이 문제에서 곧바로 “이것은 억지로 꾸며서 말할 수 없는 것이니, 모름지기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물과 이를 상대하여 말하면 이것이 이것과 같고, 이만을 가지고 말하면 이것이 이것과 같으니, 비는 도의 용(用)이고 은은 도의 소이연이면서 볼 수 없는 곳으로 여겨야 한

26) 『科題各體』(奎7299), 『崇禎紀元後四己酉式司馬榜目』附錄.

27) 『中庸章句大典』上, “費, 用之廣也, 隱, 體之微也”

다.”²⁸⁾고 한 주자의 말을 떠올렸을 것이다. 이는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은 『어류』에서의 주자의 비은에 관한 언급으로, 거자들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며 각기 자신의 생각과 주자의 이 말을 연결시켜 논리적으로 풀어내야 했다.

이상 『대학』과 『중용』에서 출제된 문제들의 예시를 살펴보았다. 『대학』에서 문장의 구조에 관한 문제는 총 10문(27%)에서 출제되었으며, 이는 다른 세 책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유형이다. 내용적인 측면을 본다면, 유가의 궁극적 목적인 상왕의 치인(治人)과 군자의 수기(修己)와 관련한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 『중용』에는 체용, 이기, 본말(本末), 도기(道器) 등 성리학적 개념의 분속과 관련한 문제가 자주 출제(12문)된 것이 다른 책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논어』에서는 단 2문제만이 출제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인간의 천부적인 본성[性]과 이를 따라 행동하는 도(道), 이 도를 닦기 위한 교(教), 성도교(性道教)에 관한 구절에서 주로 출제되었다. 두 책은 출제 비율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있었으나, 문제 출제의 범위가 좁고, 중복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어 거자들의 침신한 답안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기타

(1) 주석가들의 설 인용

전술하였듯이 당대의 시관들은 문제 출제에 있어 주자(69문)와 정자(30문)의 설을 압도적으로 많이 인용하였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학자들의 설이 문제로 출제되었다. 그들은 북송대의 학자인 후중량(候仲良, ?-?)과 유초(游酢, 1053-1123), 남송대의 교육가인 요로(饒魯, 1193-1264), 송말원초대 학자인 방봉신(方逢辰, 1221-1291), 원대 학자인 호병문(胡炳文, 1250-1333), 명대의 철학가인 왕양명(王陽明, 1368-1661) 등이다. 조선의 학자인 놀은(訥隱) 이광정(李光庭, 1674-1756)의

28) 『朱子語類』, 권63. “費是形而下者，隱是形而上者，或曰季丈謂費是事物之所以然，某以爲費指物而言，隱指物之理而言，曰這箇也硬殺裝定說不得，須是意會可矣。以物與理對言之是如此，只以理言之是如此，看來費是道之用，隱是道之所以然而不可見處。”

설을 인용한 문제도 보인다.

인용의 방식은 주자나 정자의 경우 출처를 그대로 노출해 주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별한 인용 표시 없이 문제에 바로 서술한 경우도 많았다. 그 외에는 候氏·王氏 등 성씨만을 들어 인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선유(先儒)’ 또는 ‘혹왈(或曰)·혹자(或者)’ 등으로 표현한 경우도 많았는데, 이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주자와 정자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인용된 학자들은 주로 북송대 이후의 학자들로, 주자를 중심으로 하여 그와 반대 의견을 냈던 설이나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설을 주로 인용한 경우가 많았다. 특별히 새롭거나 파격적인 설을 인용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시관이 시험 문제를 출제함에 있어서 최대한 개인의 학문적 역량을 발휘하되, 국가에서 치루는 관리 선발 시험이라는 목적에 의한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가운데 정자의 설을 인용하여 1837년(현종3)에 출제된 시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問. 中庸費隱章引詩曰，“鳶飛戾天，魚躍于淵”，程子釋之曰，此喫緊爲人處，活潑之地，夫鳶魚是天地間自在之物，而謂之爲人喫緊者，何歟？先儒曰，此與孟子所謂勿忘勿助相合，勿忘勿助何關於鳶魚之飛躍歟？²⁹⁾

- 式年監試初試二所(1837) -

위 문제는 『중용』의 비은장(費隱章)과 『맹자』의 물망물조장(勿忘勿助章) 사이의 관계를 묻는 문제로, 『중용』에서 『시경』의 시를 인용하여 나타낸 구절로부터 문제를 시작한다. 이 시는 「대아·한록(旱麓)」에 나오는 것으로, 『중용』에 인용되면서 수많은 문제에 출제된 구절이다. 이 문제에서 출제자는 크게 두 가지를 묻고 있는데, 하나는 정자가 『중용장구』 제12장에서 자사의 설을 인용하여 “긴요하게 사람을 위해 일러준 곳으로 생기가 넘친다[此喫緊爲人處，活潑之地]”는 말에 대하여 솔개와 물고기는 천지간에 존재하는 생물인데 사람을 위해 긴요한 곳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 묻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구절이 『맹자』「공손추(상)」에서 말한 “잊지도 말고 얹지도 돋지도 말라[勿忘勿助]”고 한 구절과 서로 그 뜻이 통

29) 『科題各體』(奎7299)

한다는 정자의 말에 대해 설명해 보라는 것이다. 당연히 두 번째 질문에 문제 출제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정자의 이 설은 당시 조선의 학자들에게 꽤 유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과 그의 문하에서 수학한 문봉(文峯) 정유일(鄭惟一, 1533-1576)은 서로 간에 주고받은 편지에서 이 두 구절에 대해 논하였으며,³⁰⁾ 1751년(辛未) 겨울 성균관 거재유생들을 대상으로 치렀던 월과(月課)에도 이에 대해 논변하라는 문제가 출제³¹⁾된 적이 있다. 즉 당대 조선의 거자들에게 이 논변은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이는 정조대에 퇴계와 율곡의 논쟁이 문제에 출제³²⁾된 것과 같은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유명한 논쟁들로만 인용된 것은 아니다. 조선의 학자인 놀은 이광정의 설을 인용하여 1828년(순조28)에 출제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 先儒謂“大庸大易爲表裏”，而易曰，“一陰一陽之謂道。繼之者善，成之者性。”中庸曰，“天命之謂性，率性之謂道。”大易則道先於性，中庸則性先於道，其立言不同何歟？³³⁾

- 戊子二月公忠右道監試初試(1828) -

위 문제는 『주역』과 『중용』이 서로 표리가 된다는 선유의 설로 도입부에 운을 띠운 뒤, 주역과 중용에서 각기 도(道)와 성(性)에 대해 서술한 구절을 순서대로

30) 『퇴계집』 권25, 「答鄭子中別紙」와 『문봉집(文峯集)』 권3, 「上退溪先生問目」에 이 문제에 관하여 두 사람이 토론한 내용이 자세히 보인다.

31) 조보양(趙普陽, 1709-1788), 권정침(權正忱, 1710-1767), 권병(權炳, 1723-1772) 등은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저술하였고 이는 「勿忘勿助與鳶飛魚躍同意辨」라는 제목으로 각기 『팔우현집(八友軒集)』 권5, 『평암집(平庵集)』 권5, 『약재집(約齋集)』 권8에 실려 있다.

32) 1777년 丁酉式年監試의 覆試(二所)에서 출제된 문제로, 사단칠정(四端七情)과 이기(理氣)에 관하여 퇴계와 율곡의 대립된 설을 인용하였다. 문제는 다음과 같다. “問。中庸言喜怒哀樂，所謂七情也。孟子言惻隱羞惡辭讓是非，所謂四端也。先儒以七情爲氣發而理乘，而四端爲理發而氣隨，又或以爲發之者氣也，所以發者理也，何者？說得其正歟？情之有四七，猶心之有人道，孰爲性命之正，孰爲形氣之私歟？原於性命之正，則固當擴而充之，發於形氣之私，則皆可遏而絕之歟？願聞其說。”

33) 『科題各體』(奎6989)

인용하였다. 대비되어 보이는 두 책의 설을 대조한 후, 두 책에서 도(道)와 성(性)의 차서(次序)가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 묻고 있다. 우선 사서에 속하지 않는 『주역』『계사전』의 설을 인용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점, 인용한 선유가 중국의 유명 학자가 아니라 조선의 학자라는 점에 있어서 다른 문제들에 비해 조금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설에 대해 제산(霽山) 김성탁(金聖鐸, 1684-1747)과 그의 아들 구사당(九思堂) 김낙행(金樂行, 1708-1766)이 자신의 글에 인용하고 있으며 강좌(江左) 권만(權萬, 1688-1749)은 『중용』에서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 서술한 「중용의의(中庸疑義)」에서 또한 놀은의 설을 인용³⁴⁾하였다. ‘大庸大易爲表裏’라는 구절은 놀은집이나 강좌집에 보이지 않아 이에 관한 자세한 이광정의 설은 찾기 힘들고,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1710-1781)의 「讀權江左中庸疑義」에서 그 일면을 볼 수 있을 따름이다. 김성탁 부자와 권만, 이상정 등이 이광정과 같은 문학에서 수학하고 교유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이 구절은 이광정과 긴밀하게 편지로 교류했거나 모임에서의 토론 등을 해왔던 몇 명만이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구절이 1828년에 향시 시제로 출제되었다는 것은 당시의 시관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상정 이후로 그 문학에서 함께 수학한 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시험 문제에 있어서 시관 개인의 학문적 교류가 문제로 직결된 예라고 하겠다.

이처럼 여러 학자들의 설을 인용하여 문제를 내는 것은, 사서의 시험이 단순한 경의(經義)를 묻는 시험과 차별화된 점이며 이를 위해 거자들은 주·정자(朱·程子)의 설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 중국학자들의 설까지 학습해야 했다. 사서의 시험을 준비함에 경문의 대의(大義)를 외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자 등 여러 학자들의 설까지 완벽히 파악하고 있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2) 총경(總經) - 네 책 가운데 특정한 구절을 인용하여 출제하지 않고 하나의 개념을 들어서 경서 전반부를 총괄하여 낸 문제들도 있는데, 주로 性, 命, 利 등의 개념으로 문제를 냈다. 또한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지은이, 주석가 등에 관

34) 『제산집(霽山集)』 권7의 「答權一甫書」, 『구사당집(九思堂集)』 권2의 「與權江左論中庸疑義」, 『대산집(大山集)』 권41의 「讀權江左中庸疑義」 등에 보인다.

한 문제, 전수 과정에 관하여 낸 문제 등도 출제되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問. 論語末章曰, “不知命, 無以爲君子”, 中庸首章曰, “天命之謂性”, 命之義同歟異歟? 大學末章曰, “以義爲利”, 孟子首章曰, “何必曰利”, 利之義同歟異歟? 願聞其說.³⁵⁾

- 己亥八月咸鏡北道式年監試初試(1840) -

위는 네 책의 각 첫 번째 장과 마지막 장에 주목하여, 명(命)과 리(利)에 관한 해설을 요구한 문제이다. 『논어』에서는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가장 마지막에 배치하였으며 『중용』에서는 하늘의 명을 성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가장 첫 번째 구절에 넣었다. 『논어』에서의 명은 군자가 되기 위한 조건의 하나로 내세웠고, 『중용』에서의 명은 하늘에서 품부 받은 명으로 본성과 연결되는 개념으로 서술하였다. 『중용』에서의 명은 이미 본문에서 천명(天命)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논어』의 ‘不知命’에서의 ‘命’도 또한 주자는 천명이라고 풀이하였다. 『대학』에서의 이 말은 “國不以利爲利, 以義爲利也”에서 나온 말로, 국가의 어른이 되어 재용(財用)을 힘쓰는 자는 반드시 소인으로부터 비롯되니, 소인으로 하여금 국가를 다스리게 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내었다. 이의만을 중요시 여겼을 때의 해악을 거듭 말하며, 반드시 그 의리로써 다스려야 함을 피력한 구절이다. 『맹자』에서의 이 말은 “王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矣”에서 나온 말로 맹자와 양혜왕의 대화 속에서 언급되는 말이다. 나라를 이롭게 하는 방도를 듣고자 하는 양혜왕에게 맹자가 이익보다 인의(仁義)를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대답을 하는 상황으로, 이 구절은 1장의 앞뒤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온다. 두 말이 나온 상황에서 보았을 때 『대학』과 『맹자』 모두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와 관련하여 이(利)와 의(義)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얼핏 보았을 때 크게 의미가 다르지 않아 보이는 두 책에서의 명(命)과 리(利), 이(利)와 의(義)에서 거자들은 과연 어떠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진다. 이는 자연스럽게 개념어의 선후고하와도 연결되는 것

35) 『科題各體』(奎7299).

으로, 거자들은 책의 가장 앞 혹은 뒤에 이 개념어를 언급한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했다. 시관이 네 책의 가장 앞 뒤 구절에서 동일한 개념어가 나오는 것에 감안하여 출제한 흥미로운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순조~철종대에 출제된 사서의 시제 382문에 관해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각 책마다 출제의 경향성이 드러났으며, 이는 각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긴밀히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각각의 특성이 그 책만의 경향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문제 출제의 빈도에서 그 대략적인 경향성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문제 출제에 있어 왕의 개입이 비교적 적었던 사서의 시험에서 각 왕조별로 문제 출제의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 군주 한 명의 학문적 관심사와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는 곧 문제를 직접 출제한 시관 개개인의 학풍과 더욱 관련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서의 시험을 출제한 시관들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중복 출제에 관해서 보자면, 한성시보다는 향시에 중복 출제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성시의 경우는 이미 예전에 출제된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한성시 시제로 나왔던 문제가 약 5~10년 정도 후에 향시의 시제로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를 꽤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사마방목』의 간행으로 인한 한성시 시제의 안정적인 기록 및 보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시관들이 출제를 할 때 기존의 시제 관련 전적을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이다. 반면 향시의 경우는 기존 시제를 담은 전적이 드물었으며, 시관의 차정(差定) 방법 또한 차이³⁶⁾ 가 있었다. 한성시(漢城試)의 경우 이조에서 시관을 비망(備望)하였지만, 향시는 관찰사나 병마절도사가 차정하였으며, 명종대 이후로 향시에 경시관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기인된 한성시와 향시의 위상 차이는 곧 문제 출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정조대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순조대에 그대로 출제 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는 정조대와 순조대를 비교했을 때

36) 한성시와 향시의 시관 차정에 관해서는, 원창애·박현순·송만오·심승구·이남희·정해 은, 2014 『조선시대 과거제도 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60면 ‘향시’ 참조.

보이는 현상일 뿐, 시간이 흘러 현종·철종대에 이르면 순조대에 기출 되었던 문제가 반복해서 계속 출제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선유들에게 대대로 논쟁이 되어온 구절에 문제가 집중되는 현상 때문이며, 둘째는 한정된 텍스트 안에서 후대로 갈수록 더 이상 새로운 문제를 창조하기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4. 맷음말

지금까지 순조~철종대에 사서의 과목으로 출제된 시제의 경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시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 시제집 및 과문집의 활발하게 편찬되어, 사서의 시험의 여러 형태의 기록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았다. 특히 향시 및 외방 공도회의 시제를 수록한 여러 과문집의 편찬으로 인해 이 시기에 출제된 다양한 사서의 시제와 제문들을 다수 살펴볼 수 있었다. 시제의 출제양상은 네 책이 각기 다양하였고, 문제 출제의 빈도를 통해 대략적인 경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정조 대와 비교하였을 때 개념에 관한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는 차이점이 있었으며, 사서의 경문에만 구애받지 않고 서문(序文), 여러 주석가들의 설, 『주역』 등을 문제에 활용한 점 또한 눈여겨볼만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이 시기에만 보이는 특성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조선의 전(全) 시기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각 시기별로 보이는 특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중복출제는 한성시보다는 향시에서 더욱 자주 보이는 현상이었으며, 시기적으로는 『중용』을 제외하고는 순조대의 경우 정조대와 비슷한 문제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정조대의 시제집 편찬의 목적인 중복 출제의 금지와 관련하여, 정조대와 거리가 멀지 않은 순조대까지는 잘 지켜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시간이 흘러 현종~철종대로 갈수록 다시 예전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거의 동일하게 다시 출제되는 양상을 보였다. 결국 한정된 텍스트 안에서의 시제 출제에 대한 한계가

노출되었으며, 중복 출제에 관한 금기가 뒤로 갈수록 해이해 진 것으로 보인다.

사서의 과목의 시제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시관들은 네 책을 아우르거나[總經] 경문 이외의 부분까지 문제 출제의 외연을 넓히려는 노력을 했다. 또한 거자들의 제문에 관해 엄격하고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점수를 주어야만 했다. 진부한 질문에 대한 참신하고도 논리적인 제문을 찾는 것이 당시 시관들의 임무였던 것이다. 보다 심도 있는 사서의 시험에 관한 고찰을 위해 제문에 관한 연구 또한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후일의 연구로 남겨둔다.

논문투고일(2017. 11. 2), 심사일(2017. 11. 17), 게재확정일(2017. 12. 4)

참고문헌

1. 자료

- 『九思堂集』, 한국문집총간 222, 민족문화추진회.
- 『國朝榜目』,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MF35-726~727).
- 『科題各體』,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奎6989), (奎7299).
- 『橘山文庫』,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古 4254-3).
- 『廣州府公都會科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奎11434-1).
- 『大山集』, 한국문집총간 226~227, 민족문화추진회.
- 『大典會通』,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奎1302-v.1-5).
- 『文峯集』, 한국문집총간 42, 민족문화추진회.
- 『覆試科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古朝26-55).
- 『司馬榜目』, 국학자료원, 1990.
- 『水原府公都會初場科作』, 서울대학교 규장각(奎11434-2).
- 『約齋集』, 한국문집총간 속87, 민족문화추진회.
- 『臨軒功令』, 규장각본(奎11437), 국립중앙도서관본(古貴3647-5-1-4).
- 『臨軒題叢』, 규장각본(奎11437), 국립중앙도서관본(BC古朝25-41).
- 『定州都會科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奎9854-2).
- 『霽山集』, 한국문집총간 206, 민족문화추진회.
- 『朱子語類』, 宋 黎靖德 等 編, 四庫全書.
- 『晋州公都會科作』, 서울대학교 규장각(奎3253).
- 『忠清左道燕岐都會監試科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奎9853).
- 『退溪集』, 한국문집총간 29~31, 민족문화추진회.
- 『八友軒集』, 한국문집총간 속79, 민족문화추진회.
- 『平庵集』, 한국문집총간 속79, 민족문화추진회.
- 『平壤都會科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奎3253).
- 『海州東堂初試科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奎3253).
- 『晦庵集』, 宋 黎靖德 等 編, 四庫全書.

2. 논저

- 박현순, 2014 『조선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 원창애 · 박현순 · 송만오 · 심승구 · 이남희 · 정해은, 2014 『조선시대 과거제도 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이성무, 1997 『한국 과거제도사』, 민음사.
- 김동민, 2014 「正祖의 策問 : 春秋를 통해 본 조선조 春秋學의 문제의식」, 『東洋古典
研究』 56, 동양고전학회.
- 김동석, 2013 『조선시대 시권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박재경, 2014 『조선시대 책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5 「세종조 책문의 글쓰기 비교 연구 : 成三問, 申叔舟, 李石亭의 對策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42, 대동한문학회.
- _____, 2017 「조선시대 대책(對策)의 중국 대책 수용양상」, 『정신문화연구』 40, 한
국학중앙연구원.
- 박현순, 2016 「정조의 『臨軒題叢』 편찬과 御題 出題」, 『규장각』 48, 서울대학교 규장
각한국학연구원.
- 심재권, 2015 「조선조 과거시험과목인 책문의 내용 및 주제 분석」, 『韓國行政史學誌』
37, 한국행정사학회.
- 윤선영, 2016 「正祖代 四書疑 試題 小考」, 『泰東古典研究』 37, 한림대학교 태동고전
연구소.
- 이강재, 1998 『論語 上十篇의 解釋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래종, 2013 「疑義의 形式과 그 特性」, 『대동한문학』 39, 대동한문학회.
- 이상욱, 2015 『조선 과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진옥, 1994 『朝鮮時代 生員進士 연구: 司馬榜目의 분석』,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
위논문.

3. 인터넷 자료

-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
-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 E-뮤지엄(<http://www.emuseum.go.kr>)
- 한국고문서자료관(<http://archive.kostma.net>)

Abstract

A Study on the Selection Trends of *Saseoui* (四書疑) Exam Questions from the Reign of King Sunjo to King Cheoljong

Yoon, Sun-young

From the reign of King Sunjo to King Cheoljong, collections of sample questions and prose were actively published for a subject test on Four Books (*Saseoui* 四書疑) in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Among them, *Gwaje gakche* (科題各體) and *Imheon gongnyeong* (臨軒功令) are best known. Some personal anthologies and the list of successful examinees (*Sama bangmok* 司馬榜目) also provide a glimpse of these exam questions. Through 382 questions collected from these sources, the trends of their selection on each book will be analyzed. In case of *The Analects of Confucius* (*Lùnyǔ* 論語), most of the questions involved definitions of conceptual terms and their relationship. On *Mencius* (*Mèngzǐ* 孟子), the focus was mainly on human nature, the system of monarchy, and the social institution. On *Great learning* (*Dàxué* 大學), and the *Doctrine of the Mean* (*Zhòngyōng* 中庸), the questions were often repetitive, mainly focusing on the sentence structure in elaboration of “eight steps of personal cultivation,” or distinguishing the Essence-Function (*tìyòng* 體用). Some of the questions were based on notes by scholarly commentators, or an integrated topic from all the four books. Repetitious questions appeared more frequently in local exams than in the capital city, scarcely during the reign of King Sunjo—the successor of King Jeongjo—yet frequently during the later reigns of Kings Heonjong and Cheoljong. Repetitions were inevitable due to the limits in the range of the subject questions, which the test-makers attempted breakthroughs by expanding the range of the questions’ sources to introductions and annotations.

Key words : King Sunjo, King Heonjong, King Cheoljong, civil service examination, *Saseoui* (四書疑, Questioning on the Four Books), test questions, *Kwaje gakche* (科題各體), *Imheon gongnyeong* (臨軒功令)